

고물가에 달하는 지갑...광주 유통업계 '먹구름'

광주상의, 소매·유통업 4분기 경기전망지수 74... '악화' 전망 소비심리 위축·온라인 소비 확대·불확실성 가중에 부진 지속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물가가 치솟는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소비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소비가 위축되고 온라인 시장 확대가 겹쳐 지역 소매유통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올 4분기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74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체감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최근 가파른 물가·금리 상승에 더해 '거래절벽' 현상 등 자산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비 여력은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거나,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있다는 지역 유통업계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경영항목별로 보면 매출·수익항목(74)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익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전망치가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항목(93)은 근무시간 축소, 무인 자동화 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비용항목(134)은 구조조정, 광고비 절감 등 관리비용 축소 계획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125)는 온라인 배달증가와 연말시즌·동절기 물품 판매 증대에 대한 매출증

가 기대로 체감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백화점(66)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내수부진과 온라인을 통한 구매확산 등으로 전망치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66)은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고, 슈퍼마켓(90) 역시 식자재 가격 상승, 중대형 슈퍼마켓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개선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활동 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비위축(36.2%)', '상품매입 원가상승(25.5%)', '인건비와 금융, 물류비 등 비용상승(19.1%)', '소비자 물가상승(12.8%)', '경쟁심화(4.3%)', '소비트렌드 변화(2.1%)'라고 응답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가안정·하락(48.9%)', '가격

할인·판촉행사 확대(23.4%)', '경기부양(8.5%)',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8.5%)', '가성비 좋은상품·서비스개발·확대(6.4%)', '임금인상(2.2%)', '기타(2.1%)' 순으로 파악됐다.

기업경영 중 주요 경쟁상대가 어느 업종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온라인쇼핑(48.9%)', '편의점(27.7%)', '대형마트(17.0%)', '백화점(8.5%)', '슈퍼마켓(4.3%)', '기타(2.0%)' 순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로 업계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유통산업 분야의 지원책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동명동 인기 과자 맛보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광주 동명동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한 '피플필스' 임시 매장에서 휘낭시에 과자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메탈 김치통을 선보이고 있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사면 ‘메탈 김치통’ 드려요”

삼성전자 31일까지 프로모션 패널도 50% 할인 행사 진행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김치는 메탈로 통하다' 프로모션을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김장철과 본격적인 겨울가전 시즌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구매 시 김치와 다양한 식재료를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메탈 김치통을 무상 증정한다. 프로모션을 통해 증정하는 메탈 김치통은 뛰어난 밀폐력과 낮은 기체 투과도로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까지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 냄새와 색매임도 적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삼

성전자의 설명이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는 상칸 내부의 커버·천장·선반에 메탈을 적용하고 '커팅+'를 더한 4면 메탈 클링과 칸별 메탈클링이 탑재, 냉기를 지켜 김치와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다. 다양한 김치 보관·숙성 모드와 함께 육류·생선·뿌리채소·곡물·와인 등 총 23가지 식재료 맞춤 보관기능을 탑재했으며, 육류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함께 활용해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패널 할인 프로모션'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비스포크의 인기있는 전 패널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중기 상생협력안 '적극 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한전KDN, 대국민 투표제 도입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사내 적극 행정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경진대회 공모는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을 활용하는 '대국민 투표제도'가 도입됐다.

한전KDN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심사를 벌여 최우수 사례 1건, 우수 2건 등 총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

하는 중소기업 상생과 정부 정책에 부응한 적극 행정이 뽑혔다.

이 사례는 국제 반도체 대란과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위해 납기일을 조정해주고 수급이 어려운 부품을 변경하는 등 대안이 담겼다.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사례로는 업무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 해서 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스마트폰 사용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자동인식과 시청각 안내 기능을 탑재한 안전표지판 개발이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50돌' 공모전 초성 4행시 등 31일까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사·수필·초성 4행시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학연금은 오는 2024년 1월1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사학연금은 '창립 50주년 대비 사·수필·초성 4행시 공모전'을 마련했다. 응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우수상(1명) 100만원 등 수상자에게는 총상금 22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다음 달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백희준 기자 bhj@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